# KIA '마당쇠' 장현식 "팀 승리만 보고 달린다"

## 55경기서 53.2이닝 소화…불펜진서 전천후 활약

"나는 나를 버렸다. 나에게는KIA타이거즈만 있다."

KIA 타이거즈의 '마당쇠' 장현식이 팀의 승리를 위해 앞만 보고 있다.

장현식은 올 시즌 말 그대로 KIA의 마당쇠다. 그는 올 시즌 KIA 투수 중 가장 많은 55경기에 나와 53.2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부상과 부진으로 기복 많았던 불펜진에서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전천후 활약을 하고 있는 장현식은 지난 3일 한화전에서 4연패 탈출에도 큰 역할을 했다.

장현식은 양현종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2이닝을 지키면서 7-3 승리에 기여했다. 최근 마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고전했던 KIA는 이날 장현식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두고 4연패에서 탈출했다.

장현식은 "언제든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가면 잘 막자, 꼭 막자는 생각이다. 기술적으로 집중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한타자 씩만 막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즌 초반에는 거침 없던 KIA 불펜의 질주였다. 하지만 좌완 곽도규, 최지민이 기복을 보이면서 잠시 쉬어가기도 했고 마무리 정해영은 어깨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전상현과 함께 불펜을 끌고 가고 있는 장현식은 "불펜에 변화가 있지만 자리가 안 정해져 있어 잘할 수 있다면 그게 도움 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선선할 때까지 많이 뛰자가 여름 목표다"고 말했다.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KIA는 올 시즌 충격적인 패배 순간들도 경험했다. 사직에서는 14-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무승부가 남았고, 최근에는 두산에 무려 30실점을 하면서 최다점수 차 패배도 기록했다.

장현식은 아픈 기억을 '경험'으로 삼고,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장현식은 "큰 충격이 있었다. 지나고 나면 다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느끼는 게 많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경기에서 부담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장현식은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그는 무더위에도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시즌을 이어가고 있다.

장현식은 "감독, 코치님께서 쉴 타이밍, 운동 같은 것을 잘 조절해 주신다. 컨디션 저하가 보이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신다.

또 아내의 사랑 덕분인 것 같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며 "감독님께서 동기부여를 잘 해주신다. 선수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선수들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앞만 보고 달려야 할 때다. 뒤에 누가 오든 말든, 우리가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달리기를 할 때 앞사람이 너무 멀어진다 싶으면 뒷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팀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할 것만 하면서 우리 이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팀 승리를 위해 나는 나를 버렸다"고 우승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앞장서서 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장현식

# 손흥민 '창' 막은 김민재 '방패' …뮌헨 먼저 웃었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오른쪽)이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맞대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뮌헨, 토트넘에 2-1 승

"경기 전에 서로 마주치지 말자고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웃음)"

한국 팬 앞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해 다소 아쉬워한 손흥민(토트넘)과 관심이 부끄러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첫 맞대결 현장이었다.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가 열린 지난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6만3496명의 관중이 가득 들어찼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창' 손흥민과 '방패' 김민재의 사상 첫 맞대결에 모든 이목이 쏠렸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 김민재는 센터백으로 나선 만큼 둘이 맞서는 장면은 자주 나오진 않았다.

경기 시작부터 왼쪽 뒷공간을 침투하는 손흥민과 수비 커버를 위해 전력 질주한 김민재가 한 방향으로 모여들어 순간적으로 팬들의 기대감이 순간적으로 증폭됐지만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먼저 공을 처리하면서 볼 다툼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반 4분 뮌헨의 가브리엘 비도비치가 먼저 골망을 흔들자 토트넘 팬들의 아쉬움의 탄성을 내뱉었고, 뮌헨 팬들은 열광했다.

또 김민재가 적극적인 수비로 토트넘의 패스 길을 차단할 때마다 박수가 쏟아졌다.

전반전은 뮌헨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펼쳐진 가운데 후반전 김민재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오면서, 손흥민과의 '캡틴' 대결도 완성됐다.

후반 시작 직후 손흥민과 김민재가 몇 차례 맞붙는 장면이 나왔다.

후반 3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하자 김민재가 동료와 협력 수비로 막아냈다. 후반 6분에는 손흥민에게 향하는 뒷공간 패스를 김민재가 헤더로 끊어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결국 김민재가 후반 10분 에릭 다이어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나오면서 손흥민과의 맞대결은 마무리됐다. 경기는 뮌헨의 2-1 승리로 끝났다. /연합뉴스

# '연패 탈출' KIA, 폭우에 깜짝 휴식

## 알드레드-바리아 맞대결 무산…2위와 5.5게임 차

폭우와 폭염으로 그라운드가 멈췄다.

4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14차전이 비로 열리지 못했다.

KIA는 이날 캠 알드레드를 선발로 내세워 제이미 바리아와의 맞대결을 준비했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우천 취소가 결정됐다.

잠실과 울산에는 불볕더위가 찾아왔다.

이날 서울 잠실구장과 울산 문수구장에서 예정됐던 경기는 폭염으로 취소됐다.

잠실에서는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맞대결이, 울산에서는 LG 트윈스-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준비됐었다.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된 건 이번이 2, 3번째이다.

지난 2일에도 LG와 롯데의 울산 경기가 폭염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프로야구 역사상 첫 폭염취소가 기록됐다.

KBO는 지난 2015년 폭염 규정을 제정해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27조에 명시했다.

취소된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한편 KIA는 전날 김도영의 역전 투런을 앞세워 7-3 승리를 거두고 4연패에서 벗어났다. 역전승을 거둔 KIA는 연패에 빠진 2위 LG와 5.5경기 차가 됐다.

이날 KIA와 LG가 각각 폭우와 폭염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그대로 5.5경기 차를 유지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